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향락



“내가 아는 이 중 가장 고집이 센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인사 때마다 고려대와 소망교회, 영남 출신 등 소위 ‘고소영’에 한결같은 애정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했던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하는 걸 보면서 각하의 고집을 당할 자가 전 세계에 있을까 싶었다.”

이 글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최근 모 일간지에 기고한 내용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구구절절 외양은 멀지만, 예산이든 ‘변방’에 다름이 아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 무엇보다 제대로 된 게 없다.

이 정권에선 모든 게 기대밖

현직 장관 중에 이 지역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서술이 시퍼렇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도 이런 소외는 없었다.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싹둑 잘라 경상도 쪽에 몰아주는 억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통령 공약사업도 ‘민수레일’ 뿐이다.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대통령 공약

사업인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은커녕 부지 양도·양수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 J프로젝트가 들어설 해남 구성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땅 소유주인 한 농어촌공사가 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광주·전남이 살기 위해선...

재감정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추진하면서 착공이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전남도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도 땅이 없어 홍보관 하나 짓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차별이 또 어디 있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J프로젝트의 선도시업으로 출발한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역시 정부의 지원은 시퍼렇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도 이런 소외는 없었다.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싹둑 잘라 경상도 쪽에 몰아주는 억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통령 공약사업도 ‘민수레일’ 뿐이다.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대통령 공약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인 스포츠 이벤트이자 전세계 6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F1 대회를 국가적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고, 설사 정부와 협의했다손 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허가했을 리 만무하다.

호남선 고속철도의 광주~목포 구간 지속철화 문제도 지역민들에겐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정부가 이 구간에 고속철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철도를 활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선을 개량할 경우 속도가 시속 300km에서 188km로 줄어들게 돼 무늬만 고속철이 되는 셈이다.

전남도와 지역민들이 ‘무안공항을 경영하는 고속 신선’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기존 노선 활용 이유로 예산절약과 경제성을 들고 있지만 적자 운영인 경우고속철은 전 노선을 고속철로 하면서 유독 호남고속철만 지속철로 한다는 발상은 차별로 볼 수밖에 없다.

내년도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광주 R&D(연구·개발)특구 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시가 정부에 452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액수는 50억 원에 불과하며 대전 대덕특구의 331억 원과 비교, 7분의 1 수준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한 게 광주시다.

이렇듯 현 정권의 광주·전남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같이 초지일관이다.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한 몸부림은 자구를 위한 투쟁 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예산을 뺏기지 않고, 빼앗아 오는 길 밖에 없다.

지역예산 확보가 그 해법

우리는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3년 연속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회 상임위와 여결위에서 반영되거나 증액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이 무더기로 누락 및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언론과 여론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따라 한나라당의 단독 예산 처리가 예견되는 만큼 지역 현안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론 사수를 이유로 예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야당이기에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제시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들 예산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확보는 절대적이다.

또 다시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분명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논설주간) hshin@kwangju.co.kr

은편칼럼



최희동

요즘 판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나는 폼수다’라는 방송과 안철수 교수와 박정철 원장이 대담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청춘콘서트’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조·중·동이나 대형 TV 채널이 버티지 있음에도 왜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청춘콘서트에 많은 젊은이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일까?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정권의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여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못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언상방(一言喪邦)’, 지도자의 말실수는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인데, 지도자의 말이

나쁜 정치지도자는 우리의 미래를 끝낼 것이다

나 행동은 진중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정치지도자는 공공적 헌신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어야 하는데, 특정세력만을 위한 정책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분열과 대립, 정치권의 신뢰상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공유된 불안이 극단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런 일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 역시 비슷하기 때문이다.

1998년 10월 DJ는 일본외교 연설을 통해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과 피로 이루어졌다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오히려 어렵게 힘든 과정을 거쳐 얻은 민주주의와 경제발

전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원이 MB정권 몇 년 사이에 거꾸로 가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앓이를 해야 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슈츠는 “재정적자의 해법을 찾고 못하고 정략적 싸움이나 하는 정치권에 현금을 끊겠다”며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정치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내는 정치현금이 자신의 기업에 대한 편의적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줄 책임에 대한 대가라는 말 아닌가?

2012년은 한국의 미래가 걸린 해다.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 정권에 대한 반발과 ‘경제살리기’라는 막연한 기대로 선출된 MB정권의 실패를 경험했다. 이

제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막연한 기대로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라를 발전시킬 비전과 가치를 확실하게 살피고,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신념과 철학을 가진 올곧은 인물을 눈 부릅 뜨고 찾아야 한다.

“인류가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는 존 F 케네디 미국대통령의 말처럼 “우리가 내년에 훌륭한 정치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 나쁜 정치지도자가 우리의 미래를 끝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 또한 자신이 지지는 후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소아적 생각을 버리고 과연 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람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통합하는 창조적 정신이 필요한 때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통일을 위한 남북 관계가 다시는 거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정치권을 주시하자.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안기석

모기 코가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나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다. 올 여름 태풍 무이파가 남긴 상흔이 작지 않지만 광주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의미가 컸다.

또 하나, 기본 좋은 뉴스가 있었다. 광주가 건강, 교육, 교통, 대기환경, 의료 등 전 부문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등을 차지하며 가장 건강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의료 컨설

팅회사 엘리오가 발표한 전국 16개 지자체 ‘건강 순위’에서도 광주는 가장 건강한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주민 건강상태와 질병예방 성과 등 40여 개의 평가지표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기대수명이 80.4세로 전국 2위, 인구 10만명당 고혈압·당뇨환자 수 및 대장암, 유방암 환자 수도 가장 적었다. 흡연율과 비만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야채와 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광주의 생계비 및 정주여건 비교 순위’ 조사 결과에서도 광주는 ‘가장 살기 좋은 곳’, ‘참 살 만한 곳’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광주지역 4인 가구(25평 아파

트 소수) 생계비는 서울의 64.8%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생계비 지출 항목 중 주거비는 서울의 24.9%에 불과해 가장 격차가 컸다. 광주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27.6분(2010년 기준)으로 서울 40.8분보다 13.2분 적게 걸리는 등 전국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환경공단

이 산정한 2009년 전국통합환경대기질지수(CAD) 부문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4번째로 대기환경이 좋았으며, 같은 해 기준의 대기관 총사자 수는 1만명 당 56.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고등학교 수능성적 1~2등급 비중과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005년부터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 광주 학생들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지가 완료됐다고 설명한다. 이때 이미 부과된 연회비를 확인하지 않으면 회사들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즉 소비자가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물려주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를 겨우 한두 달 사용한 뒤 해지해도 연회비는 통째로 다 받는 경우도 문젠다.

연회비란 개념은 1년간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혜택을 누리는데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다. 따라서 연회비를 부과할 때는 사용한 개월 수에 맞춰서 월 단위로 계산해 그 일부는 돌려줘야 마땅하다.

▲오승영·광주시 북구 안임동

신용카드사들, 휴면카드 연회비 계속 쟁겨서야

정부는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카드일 때 연회비를 전부 다 돌려주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들은 주로 직원들의 인맥을 동원해 가입자를 늘린다. 친인척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든 사람이 많다. 이 때문에 만들지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도 많다. 그런데 이 같은 휴면 카드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만원 안팎의 연회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휴면 카드일 경우에는 연회비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문제 삼지 않을 경우 카드회사들은 연회비를 받아 쟁겨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신용카드 회사에 카드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면 안내 직원은 카드 해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쌀값 하락·면적 감소 더 이상 악순환 안 된다

쌀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쌀값이 매년 하락하면서 벼 재배 면적도 줄고 있는 추세지만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상 기후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30년 만에 최악의 흉작이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지난해(429만5000t)보다 1.2%~4% 감소한 412만4000~424만4000t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재배면적이 지난해(89만2074ha)보다 4.3% 줄어든 85만3823ha에 그친데다, 기상 이변으로 쌀 소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재배면적이 17만4930ha로, 지난해보다 4.8%(8874ha)나 감소했으며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와 벼농사 초기 불량 발생 파동에 따라 생산량이 역대 최저인 지난해(84만6000t)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악순환은 농촌의 고령화와

이상 기후의 영향 탓도 있으나 정부가 쌀값과 재배면적 유지보다는 오히려 하락과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지난 5월 쌀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 비축미를 반값에 판매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를 주도했다. 쌀값을 하락시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진정시키겠다는 알팍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산지 쌀값은 물가 상승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쌀을 확대해선 안 된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식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식량 안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쌀이 남아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향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생명 줄인 쌀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면 그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실 시스템이 부른 ‘가짜 장애인’ 양산

‘가짜 장애인’이 활개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브로커와 짜고 탈영한 사람에게 장애인단체를 발급한 의사와 가짜 진단서로 각종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도의과 원장 정모씨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브로커 20명으로부터 소개받은 정상인들에게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30만~100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발급한 대상자 1400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거주자만 120명에 이른다. 직업 또한 공무원·교사·교수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장애인이 이처럼 대거 양산된 데는 등록 절차가 너무도 허술하다는 데에 있다. 동(洞)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 등록과 심사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가 등급결정 및 심사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진단서 한 장만 제대로 갖추면 등록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파렴치한 의사도 문제지만 장애인단체 의뢰자들에게 더 철저한 사람에게 장애인단체를 발급한 의사와 가짜 진단서로 각종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장애인인 LPG 차량 구입과 유류, 통신요금,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장애인에게 차를 대지 못하고 몇 번이고 빈 곳을 찾아 겨우 주차하는 일반인의 심경에선 그저 말도 안되는 일이다.

경찰은 해당 의사와 브로커, 가짜 장애인에 대해 일방백계 차원에서 죄를 물어야 하며, 개연성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계 당국 역시 장애인 부실한 시스템에 대해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윙크(프로이센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1862년 프로이센 수상으로 취임한 직후인 9월 30일 하원에서 행한 최초의 연설에서 ‘무역을 통한 독일 통일’을 주창한다.

“...국민 여론은 바뀌는 법이며, 신문이 보도한 것을 여론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중략) 비록 군비가 빈약한 우리 몸이 너무 큰 것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한,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 지려는 정열이 있으며, 또 감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독일이 현재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눈을여겨 보아야 할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 군비입니다. 빈 회의 이래 우리의 국경

을 비확장하고 무력을 통한 독일 통일을 수행하겠다는 비스마르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준다.

이 연설로 철혈재상(鐵血宰相)으로 불리는 비스마르크는 이후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비를 확장해 1864년에 덴마크를, 1866년에는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키는데 이어 1871년에는 마지막으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독일 제국을 이룩했다.

철혈정책



비스마르크의 연설 이후 한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철=국력’이라는 등식은 이제 시대에 뒤진 고물단지 가 된 느낌이 다. 정보화시대의 절정을 치닫고 있는 지금은 단연 히토류(希土類)의 시대다. 중국

과 일본이 이미 히토류를 둘러싼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조차도 히토류 수습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시대에 뒤떨어진다면 반드시 패망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도 새로운 자원개발에 국운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홍행기정경부차장 redplane@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